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도덕지능과 내부공익신고 의도와의 관계

김인순^{1*} · 최은숙² · 이경열²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²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A study on the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

In-Soon Kim^{1*} · Eun-Sook Choi² · Kyoung-Youl Lee²

¹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ethical ability among paramedic students by analyzing their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Methods: Data from 117 paramedic students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7-14, 2015. The questionnaire measured the level of moral intelligence (7 components, 41 items)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8 items) of paramedic students.

Results: The mean score of moral intelligence was 3.07 (± 0.28) and that of whistle-blowing intention was 3.13 (± 0.42).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r = .328, p < .001$).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moral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for paramedic students in order to enhance their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Keywords: Moral intelligence, Whistle-blowing intention, Paramedic student

Received October 26, 2015 Revised November 13, 2015 Accepted December 21, 2015

*Correspondence to In-Soon Kim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cheongnam-do, 32588, Republic of Korea

Tel: +82-41-850-0303 Fax: +82-41-850-0301 E-mail: isnkim@kongj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즘 보건의료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마스크의 보도자료 중 수술실 생일파티, 음주수술, 대리수술, 병원 여자 탈의실에서 몰카 찍은 방사선기사 및 진료를 받는 환자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촬영한 의사, 불법 리베이트, 진료비 이중청구[1]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비도덕적인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은 도덕성 혹은 도덕지능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지능은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며, 대체로 다양한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려는 윤리적 마음가짐과 실천적 지혜 및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2]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며 그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윤리적 사고와 추론 등의 도덕성의 인지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3] 도덕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통합한 것으로 인지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정서적으로 타인에 연민을 갖고, 행동적으로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 인간의 인성 혹은 성품을 대변한다[2,3].

도덕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학자마다 접근하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그 의미와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다. Boss는 도덕지능을 ‘본래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도덕지능의 구성요소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으로 보았다[4]. Coles는 ‘착하고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 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로는 관용, 친절, 사려성, 민감성, 동정심, 공감능력을 제시하였으며[5], Borba는 도덕지능을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감, 양심, 자기통제, 존중, 친절, 관용, 공정을 도덕지능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고, 그는 도덕지능은 ‘학습’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6].

본 연구의 도덕지능은 Borba의 견해를 기초로 하였기에 그가 제시한 구성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감(Empathy)은 타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생각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공손함과 덕성을 강화하는 도덕적 정서로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양심(Conscience)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내면의 능력으로 정직, 책임감, 성실성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셋째, 자기통제(Self control)는 충동성을 잠재우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시키는 결단력을 의미하며 관대함과 친절을 유도하는 덕목이다. 넷째, 존중(Respect)은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는 덕목으로 사려 깊고 예의 바르며 정중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덕목이다. 다섯째, 친절(Kindness)은 다른 사람의 기분 상태나 만족도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최적의 행복에 이르도록 베푸는 덕목이며, 여섯째, 관용(Tolerance)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포용하고 새로운 시각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도록 도와주는 덕목이며, 일곱째, 공정(Fairness)은 타인을 편견 없이 올바르게 정당하게 대하도록 이끄는 힘으로 부당하다

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익을 제기하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요구할 용기를 가짐을 의미한다[3,6-9].

응급구조사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환자에 접근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것 외에 준비, 현장의 안전, 병원까지의 안전한 이송, 지속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환자를 의료진에게 이송하는 기본적인 역할 및 책임[10] 이외에 응급구조사들은 업무 도중에 동료나 응급의료종사자 그리고 기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가족에 의해 적절하지 못하거나 비윤리적 행동으로 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들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할 책임이 있다[11].

공익신고(Whistle-blowing)는 대개 양심선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며 조직구성원이 근무도중 자신의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불법, 낭비, 혹은 비윤리적 행위를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관계자에게 알려 시정하려는 행위로, 'Whistle blowing'이라는 말뜻 그대로 어떤 특정의 불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호루라기를 크게 불어 그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Whistle-blowing에 대한 한국적 용어는 학자나 시민단체에 따라 양심선언, 내부고발제, 공익제보제, 내비보고제, 공익신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12,13] 있으나 용어의 표현과는 무관하게 응급구조사가 동료 및 기타의 종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침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 공익신고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익신고는 조직의 외부자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난 후 효율적인 적발에 의한 사후통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자율적 통제기능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용성이 큰 통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12-14].

공익신고는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도덕지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이들의 도덕지능은 매우 중요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자의 권리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능이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도덕지능과, 조직의 부패행위를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관계자에게 알려 시정하려는 공익신고의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불법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고 응급구조사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응급구조사의 윤리강령에 명시된 공익신고를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실무현장에서 실천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수행할 때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인 기본자질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도덕지능 수준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 수준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응급구조학과 4개 학년에 재학 중인 1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 학과의 교수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응답의 비밀보장과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문지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9월 7일에서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118명이었으며, 불완전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한 117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도덕지능

도덕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hung[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도덕지능의 측정은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이다. 공감 7문항(Cronbach's $a=.710$), 자기통제 7문항(Cronbach's $a=.680$), 양심 5문항(Cronbach's $a=.651$), 친절 5문항(Cronbach's $a=.630$), 공정 7문항(Cronbach's $a=.720$), 존중 5문항(Cronbach's $a=.600$), 관용 5문항(Cronbach's $a=.69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hung[9]의 연구에서 Cronbach's a 는 .9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는 .910이었다.

2) 공익신고의도

본 연구의 도구는 Jiang[15]의 도구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Jiang[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 는 .8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 는 .720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 대상자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연령의 평균은 21.03세이었고, 성별은 남자 49.6%(58명), 여자는 50.4%(59명)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62.4%(73명)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41.9%(49명)이고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58.1%(68명)이었다.

대상자 중에서 윤리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70.1%(82명)이며, 비수강 학생은 29.9%(35명)이었다. 공익신고 또는 내부고발, 부패신고 등과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이 78.6%(92명)로 대부분의 학생이 공익신고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으나,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반부패 교육을 받은 학생은 9.4%(11명)에 불과하였다. 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58 (49.6)
	Female	59 (50.4)
Religion	Yes	44 (37.6)
	No	73 (62.4)
Age (years-old)	18 ~ 19	32 (27.4)
	20 ~ 21	41 (35.0)
	22 ~ 23	28 (23.9)
	≥ 24	16 (13.7)
Belong to club	Yes	49 (41.9)
	No	68 (58.1)
Ethic education	Yes	82 (70.1)
	No	35 (29.9)
Known of whistle-blowing	Yes	92 (78.6)
	No	25 (21.4)
Anti-corruption education	Yes	11 (9.4)
	No	106 (90.6)
Number of friends	No	2 (1.7)
	1	6 (5.1)
	2	12 (10.3)
	3	17 (15.5)
	≥ 4	80 (68.4)
Total		117 (100.0)

한 나의 뜻을 믿고 따라주는 절친한 친구(선배 또는 후배 포함)의 수는 4명 이상이 68.4%(80명)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7%(2명)이다.

2. 대상자의 도덕지능

대상자의 도덕지능은 <Table 2>와 같다. 도덕지능의 평균은 3.07(±0.28)점이며,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에서 전체 평균점수보다 높은 영역은 공정(Fairness) 3.21(±0.32)점과 존중(Respect)

3.15(±0.35)점, 양심(Conscience) 3.13(±0.35)점이며, 전체 평균점수보다 낮은 영역은 자기통제(Self control)가 3.07(±0.40)점, 공감(Empathy)이 3.01(±0.33)점이었고 친절(Kindness)이 2.91(±0.36)점, 관용(Tolerance)도 3.00(±0.43)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지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지능의 차이

Table 2. Category of moral intelligence

(N=117)

	Category	Mean ± SD
Moral intelligence	Fairness	3.21 ± 0.32
	Respect	3.15 ± 0.35
	Conscience	3.13 ± 0.35
	Self control	3.07 ± 0.40
	Empathy	3.01 ± 0.33
	Kindness	2.91 ± 0.36
	Tolerance	3.00 ± 0.43
Total		3.07 ± 0.28

Table 3. Mor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y	Mean ± SD	t / F	<i>p</i> (Duncan)
Gender	Male	3.10 ± 0.28	1.037	.302
	Female	3.05 ± 0.28		
Religion	Yes	3.13 ± 0.30	1.684	.095
	No	3.04 ± 0.26		
Age (years-old)	18 ~ 19 ^a	3.16 ± 0.31	2.838	.041 (c < a, d)
	20 ~ 21 ^b	3.04 ± 0.28		
	22 ~ 23 ^c	2.98 ± 0.19		
	≥ 24 ^d	3.16 ± 0.29		
Belong to club	Yes	3.13 ± 0.28	1.902	.060
	No	3.03 ± 0.27		
Ethic education	Yes	3.06 ± 0.26	-0.681	.497
	No	3.10 ± 0.32		
Anti-corruption education	Yes	3.08 ± 0.27	0.007	.995
	No	3.07 ± 0.28		
Number of friends	≤ 1	2.95 ± 0.29	2.242	.087
	2	3.09 ± 0.22		
	3	2.95 ± 0.23		
	≥ 4	3.11 ± 0.29		

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 성별에 따른 도덕지능의 점수는 남자가 3.10(±0.28)점으로 여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302$)가 없었다.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다가 3.13(±0.30)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3.04(±0.26)점

보다 도덕지능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95$)가 없었다. 연령 비교에서는 18~19세 3.16(±0.31)점, 24세 이상 3.16(±0.29)점, 20~21세 3.04(±0.28)점, 22~23세 2.98(±0.19)점의 순으로 도덕지능 점수가 연령대 별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41$)가 있었다. 동아리활동 유무에 있어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3.13(\pm 0.28)$ 점으로 하지 않는 학생 $3.03(\pm 0.27)$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60$)가 없었다. 윤리과목 수강 여부와 반부패 교육 경험유무에 따라서도 도덕지능의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p = .060$)가 없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의 수에 따라서는 4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 $3.11(\pm 0.29)$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친구의 수와 도덕지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87$)를 보이지 않았다.

4.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의 정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익신고의도 차이

대상자의 공익신고의도의 평균은 $3.13(\pm 0.42)$ 점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익신고의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공익신고의도 점수는 여자가 $3.15(\pm 0.35)$ 점으로 남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364$)가 없으며, 종교 유무에서는 평균점수가 같았다. 연령별에 따른 차이는 20~21세가 $3.20(\pm 0.40)$ 점으로 가장 높고 22~23세가 $3.04(\pm 0.44)$ 점 그리고 24세 이상 $3.04(\pm 0.46)$ 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Table 4. Whistle-blowing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y	Mean \pm SD	t / F	P (Duncan)
Gender	Male	3.12 \pm 0.47	0.912	.364
	Female	3.15 \pm 0.35		
Religion	Yes	3.13 \pm 0.36	0.000	1.000
	No	3.13 \pm 0.44		
Age (years-old)	18 ~ 19	3.17 \pm 0.36	1.280	.285
	20 ~ 21	3.20 \pm 0.40		
	22 ~ 23	3.04 \pm 0.44		
	\geq 24	3.04 \pm 0.46		
Belong to club	Yes	3.19 \pm 0.35	1.349	.180
	No	3.09 \pm 0.45		
Ethic education	Yes	3.17 \pm 0.40	1.314	.191
	No	3.06 \pm 0.43		
Known of whistle-blowing	Yes	3.10 \pm 0.40	-1.463	.146
	No	3.24 \pm 0.44		
Anti-corruption education	Yes	3.08 \pm 0.52	-0.455	.650
	No	3.14 \pm 0.40		
Number of friends	$\leq 1^a$	2.97 \pm 0.31	3.980	.010 (c<d)
	2^b	3.11 \pm 0.39		
	3^c	2.87 \pm 0.43		
	$\geq 4^d$	3.21 \pm 0.40		
Total		3.13 \pm 0.41		

의한 차이($p = .285$)는 없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3.19(\pm 0.35)$ 점으로 하지 않는 학생의 $3.09(\pm 0.45)$ 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180$)가 없었고, 윤리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3.17(\pm 0.40)$ 점으로 수강하지 않은 학생 $3.06(\pm 0.43)$ 점보다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차($p = .191$)는 없었다. 공익신고에 대한 용어를 들은 경험에 따른 공익신고의도의 차이에서도 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3.24 ± 0.44)과 있는 학생(3.10 ± 0.40)은 유의차($p = .146$)가 없었다. 반부패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은 $3.14(\pm 0.40)$ 점으로 반부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3.08(\pm 0.52)$ 점보다 공익신고의도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차($p = .650$)는 없었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친구의 수와 공익신고의도에서는 친구가 4명 이상의 친구에서 $3.21(\pm 0.40)$ 점으로 공익신고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친구가 3명인 대상자가 $2.87(\pm 0.43)$ 점으로 가장 낮았고 친구 수에 따른 공익신고의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p = .010$)있었다. 친구 수와 공익신고의도를 Duncan 사후검정 결과 3명의 친구가 있는 경우보다 4명 이상의 친구가 있을 때 공익신고의도가 높았다.

5. 대상자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와 공익신고의도 간의 관계는 공정($r = .351, p = .000$), 존중($r = .324, p = .000$)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감($r = .257, p = .005$), 양심($r = .209, p = .024$), 친절($r = .278, p = .002$), 관용($r = .224, p = .015$)은 유의차는 있었지만 약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와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28, p = .000$).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oral intelligence and whistle-blowing Intention

	Empathy	Self control	Conscience	Kindness	Fairness	Respect	Tolerance	Total moral intelligence
Empathy	1.000							
Self control	.358 (.000)	1.000						
Conscience	.520 (.000)	.523 (.000)	1.000					
Kindness	.689 (.000)	.226 (.014)	.529 (.000)	1.000				
Fairness	.628 (.000)	.490 (.000)	.618 (.000)	.549 (.000)	1.000			
Respect	.465 (.000)	.498 (.000)	.593 (.000)	.455 (.000)	.647 (.000)	1.000		
Tolerance	.474 (.000)	.546 (.000)	.524 (.000)	.522 (.000)	.606 (.000)	.717 (.000)	1.000	
Whistle-blowing intention	.257 (.005)	.161 (.084)	.209 (.024)	.278 (.002)	.351 (.000)	.324 (.000)	.224 (.015)	.328 (.000)

The numbers in the brackets are p -value.

IV. 고 찰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미래의 응급구조를 담당할 직업인으로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병원 밖 사고현장과 응급실의 응급의료 행위와 관련된 지식과 현장실무능력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 직업윤리에 근거하여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응급구조는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도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도덕이나 윤리에 관하여 적절히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법적 책임과 더불어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선한 직업인이 될 것이다.

대상자의 도덕지능 평균은 3.07(±0.28)점이며 도덕지능의 구성요소 중에서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영역은 공정과 존중, 양심이며, 평균보다 낮은 영역은 자기통제, 공감과 친절, 관용의 순이었다. Borba[6]는 도덕지능의 구성요소를 핵심덕목과 후속덕목으로 구분하였다. 공감능력, 양심, 자제력은 핵심덕목으로 보았으며 이는 후속하는 덕목인 존중과 친절의 토대가 되며 마지막으로 관용과 공정성 형성과 연관된다는 이론에 근거하면 대상자들은 후속덕목인 공정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핵심덕목인 공감과 자기통제의 점수는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의 교육 및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보면 대학입학시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만을 강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와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현대조직의 특성 하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의 학사운영 즉 학생들의 성적에 근거한 장학생 선발과 더 많은 취업의 기회 제공 등은 학생들이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인터넷게임, 사이버 상의 놀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서 직접적인 대화나 교류가 줄어들어 타인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인 공감능력과 충동성을 잠재우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시키는 결단력인 자기통제를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판단된다[3]. Lee[16]의 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덕지능의 구성요소를 친절, 공감, 관용 등 3개로 도출하였으나 각 요인에 대한 평균이 제시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Kim[17]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된 도덕지능은 3.47(±0.33)점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된 본 연구 대상자의 도덕지능보다 약간 낮았다. Kim[17]의 연구도 Lee[16]의 도구를 사용하여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의 순위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지능 점수에서 비교적 차이가 나타난 영역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신뢰하는 친구의 수, 윤리 과목 수강여부나 반부패 교육의 유무에 있어서 점수에 차이를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4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도덕지능이 높은 이유는 대학생활과 임상실습과 구급차동승실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관련된 인간관계의 다양한 도덕지능의 경험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1학년 때 높았던 도덕지능은 대학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Borba[6]는 도덕지능은 학습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Lee[3]는 초등학생의 도덕지능 증진프로그램의 타당성과 그 효과가 경험적으로 신뢰성 있게 검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Kim[17]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전후 도덕지능의 비교에서 간호윤리상황극 공연을 실시한 그룹(A)과 시나리오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그룹

(B)을 비교한 결과 B그룹에서 도덕지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윤리 찬반토론이 도덕지능과 도덕적 민감성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 도덕지능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학생들의 도덕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응급의료 중 직면하게 되는 심폐소생술, 죽음을 결정,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설명 및 동의, 환자의 사생활보호[19]와 재난상황에서 응급구조의 우선순위 결정 등과 같은 상황에 간접적인 노출을 통한 찬반토론과 팀을 기반으로 한 수업 진행도 학생들의 도덕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된다.

공익신고의도에 대한 설문내용은 학생들이 공익신고와 관련한 정확한 의미를 모를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서술하였으며, 실례는 신문에 얼마 전 보도되었던 사건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방사선 기사의 구속과 수면 내시경을 받으려온 여성들에게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다시 수술용 마취제를 주사한 후 성폭행한 의사와 그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의사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조무사 등이 구속된 사건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서 근무할 때 목격하거나 알게 될 경우를 가정하여 동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공익신고의도 평균은 3.13(±0.42)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의도에 대한 문헌이 없어 연구의 도구와 대상자는 다르나 보건의료인중 하나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wak[13]의 연구와 비교하면 간호사의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정도는 2.74(±0.27)로 학생들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공익신고 중 긍정적으로 인

식한 요인은 공익신고의 동기, 공익신고의 순기능이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요인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직과 동료의 부정적 반응이다.

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공익신고가 갖는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직에서 공익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조직내부에서의 불법 및 비윤리적인 행위도 은밀화, 구조화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의료계는 외부의 비판이나 개입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과 고도의 전문성과 은밀성을 띠고 있어 구성원에 의해 저지러지는 비리는 외부인의 일시적인 감사나 수사에 의한 적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원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 비윤리, 혹은 낭비 등의 비리행위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20]되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공익신고의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이익 그리고 안전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익신고 점수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이는 제시된 실례에서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동질의 피해의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22세 이상에서 보다 18~21세가 공익신고의도가 높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13]. 서클활동 유무와 공익신고의도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공익신고의도가 높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수가 4명 이상 있을 때 공익신고 의도가 높았다. 서클활동 유무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수와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리과목 수강 유무와 공익신고의도는 윤리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반부패 교육을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학생보다 공익신고 의도 점수가 낮았다. 학생들이 받은 반부패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익신고 사례에 대한 분석과 추후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었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주어지는 심각한 불이익 즉 공익신고자를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간주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고 동료들은 의심과 불화를 조장하고 대인관계를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공익신고자를 부담스러워 피하는 등의 조직과 동료의 부정적 반응[13,14]은 학생들의 공익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조직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익신고의 순기능을 알고 있으나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상자의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Jiang[15]의 연구에서 개인도덕성과 직장인의 공익신고의도와 상관성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Park 등[21]의 연구는 콜버거의 이론에 근거하여 도덕발달의 단계와 부정 신고의 의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정의의 영역에만 국한하여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었다. Borba[6]는 도덕지능을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공익신고와 도덕지능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 하는 동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도덕지능의 구성요소와 공익신고의도 간의 관계는 공정과 존중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감, 양심, 친절, 관용에서도 약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기통제와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공감, 양심, 친절, 존중, 관용 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배려의 측면에서 부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스스로 옳은 행동을 선택하는 요소이며, 공정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요소로 작

용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의도와 관련성이 높은 구성요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기통제는 충동성을 잠재우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시키는 결단력을 의미하고 있어 공익신고의도를 절제시키는 요소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 다른 재능과 지능을 발현하는 토대가 되고 인생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본지능의 성격이 강한 도덕지능과 본인 및 동료, 기타의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공익신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윤리적인 기본자질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도덕지능은 평균 3.07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공익신고의도 또한 평균 3.14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도덕지능과 공익신고의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도덕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공정과 존중이 높을수록 공익신고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응급의료윤리에서 강조하는 공정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도덕성을 외면한 지식과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한다면 도덕지능의 부족에 의해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능력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본인 및 동료 그리고 기타의 다른 협력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는 도덕불감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직업윤리에 준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도덕 지능을 확립하기 위한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모색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힘을 길러 부정적 영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함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People's Solitarity for Social Progress. Analysis of health medical trend, Jan, 2015. Available at: <http://www.pssp.org/bbs/data/document/15/%EB%B3%B4%EA%B1%B4%EC%9D%98%EB%A3%8C%EB%8F%99%ED%96%A5%5B20141219~20150102%5D.pdf>, 2015.
2. Jeong SY.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moral intelligence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0, Seoul, Korea.
3. Lee YS.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moral intelligence promo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2014; 46:183-6.
4. Boss JA. The autonomy of moral intelligence. *Educational theory* 1994;44(4):399-416.
5. Coles R. The moral intelligence of children (Jeong HS) 1st ed. Seoul: Hainaim, 1997, 10-21.
6. Borba M. Building moral intelligence(Han HJ) 1st ed. Seoul: Haneon, 2005, 16.
7. Lee YS. The effects of care promo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on the moral intelligence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2; 125(2):91-116.
8. Lee IJ, Jeong SY. Ways of building of moral intelligence for 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2010;33:197-226.
9. Chung YJ.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oral intelligen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Seoul, Korea.
10. Korean Council of Professor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Emergency care (Limmer D, O'Keefe MF). 11th ed. Seoul: Daehakseorim, 2009. 7-8.
11. Korean Council of Professor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Paramedic care. Principle & practice vol. 1 (Bryan B, Robert P, Richard C). 4th ed. Seoul: Daehakseorim, 2014. 52.
12. Park HS. Theory of whistleblowing, Nanam, Seoul: Korea, 1999. 32-3.
13. Kim IS, Kwak MS. A study on the attitude and perception about whistleblowing. *Journal of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2008; 13(3):19-35.
14. Kim JS, Jeong SK. A study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 as a criminal law. *Journal of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2013;14(4):276-8.
15. Jiang Y. A study in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ituation factor on whistle blowing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Daegu, Korea.
16. Lee HW. A study on the moral intelligence of university students who major in phys-

- 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2012;23(2):15-24.
17. Kim MA. Two teaching methods to improve nursing student' moral intelligence,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Theatre of situation and pro-con debate, *Korean J Med Ethics* 2013;16(3):376-90.
18. Jeong JH. Moral intelligence: Enhancing business performance and leadership success 304(Lennick D, Kiel F) 1st ed, Seoul: Booksnut, 2006. 39.
19. Yun HW, Lee JM. Perception about the professional ethics of EMT. *Fire Sci Eng* 2014;28(1):71-8. <http://dx.doi.org/10.7731/KIFSE.2014.28.1.071>
20. Kim IS, Kwak MS. The types of nurses perception of whistle blowing. *J Korean Acad Nurs Adm* 2004;10(2):265-76.
21. Park HS, Lee SY, Lee JM. Effects of moral development on employees' intent to report wrongdoing in an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2012; 17(1):1-24.